

| | | | | | | | | | | |
|---|-------------------------|--|---------------|------|-----|--|--|--|--|--|
| 연구방법론 | | | 번호: I - B - 5 | | | | | | | |
| 제 목 | 국문 | 일개 코호트 연구에서 식이 패턴의 파악과 일반 사망률간의 관련성 평가 | | | | | | | | |
| | 영문 | Evaluation of correlation between dietary patterns and mortality in a cohort study | | | | | | | | |
| 저 자 및 소 속 | 국문 | 이민정 ¹⁾ , 이무송 ¹⁾ , 이상일 ¹⁾ , 강영호 ¹⁾ , 안윤옥 ²⁾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 | | | | | | |
| | 영문 | Min-Jeong Lee ¹⁾ , Moo-Song Lee ¹⁾ , Sang-Il Lee ¹⁾ , Young-Ho Khang ¹⁾ , Yoon-Ok Ahn ²⁾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 | | | | | | |
| 분 야 | 역 학 연구방법론 | 발 표 자 | 이민정 일반회원 | 발표형식 | 구 연 | | | | | |
| 진행상황 |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4년 04월 | | | | | | | | | |
| <p>1. 연구목적</p> <p>기존 식이 역학연구는 대부분 각 음식물의 섭취 빈도나 섭취량을 분석하여 질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다수 음식물의 분석에서 제 1종 오류는 음식물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로 증가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음식물 섭취 빈도로부터 식이 패턴을 파악하였으며, 식이 패턴과 일반 사망률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p> | | | | | | | | | | |
| <p>2. 연구방법</p> <p>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의 직장 남성으로 1993년 1월 1일 현재 설문 조사된 14,533명이었다. 설문조사로써 88개 음식물의 섭취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1999년 12월 31일 까지 6년 동안 사망 여부를 통계청 사망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6년 동안 총 244명 (1.68%)이 사망하였다. 음식물의 섭취 빈도를 요인 분석하여 총 10개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식이 패턴을 구별하기 위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에서는 표준화된 섭취 빈도를 2002. 3. 23 하였다.</p> | | | | | | | | | | |
| <p>3. 연구결과</p> <p>전체 사망자는 244명으로서 연령별로 41세-45세 41명(0.8%), 46세-50세 59명(1.4%), 51세-55세 80명(2.2%), 56세부터 60세의 경우 64명(3.7%)이 사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식이 설문에 분류된 음식물 군과 실제 요인 분석된 음식물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군집분석 결과 총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는데, 군집을 구분하는 특성으로는 전반적인 섭취 빈도와 각각의 음식물 섭취 양상 등이 있었다. 이상의 5가지 군집과 사망률의 관련성을 Cox 모델로 분석한 결과 군집별로 다른 사망의 양상이 관찰되었다.</p> | | | | | | | | | | |
| <p>4. 고찰</p> <p>식이 섭취 빈도와 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특성화된 몇 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군집별로 사망률의 차이를 관찰하였다.</p> | | | | | | | | | | |